

## 참고문헌

- 박정희 대통령 1974년 연두 기자회견.  
EAI 안보넷, “[EAI 논평 제24호]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 공진 (coevolution) 전략의 본격적 모색”(2012/1/2).  
이태진, 하영선 외. 2011. 『12시간의 통일이야기』. 서울: 민음.  
하영선. 1984. “북한의 한국전쟁 해석”.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 8집.  
\_\_\_\_\_. 1993.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 17집.  
하영선·김상배 엮음.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하영선, 조동호 외. 2010. 『북한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하영선. 2011. “한반도 복합그물망 통일과 동아시아”. 김우창 외. 『통일한반도와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길』. 서울: 나남.  
\_\_\_\_\_. 2011. 『역사속의 젊은 그들: 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북학파까지』. 서울: 을유문화사.  
\_\_\_\_\_. 2012. “세계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하영선·남궁곤 편저. 『변환의 세계정치』 2판. 서울: 을유문화사.  
\_\_\_\_\_. 『한국근대국제정치론』(근간).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2011.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안: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의 구축』. 서울: 한울.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 Project, Woodrow Wilson Center,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A Critical Oral History* (<http://www.wilsoncenter.org>).  
  
胡锦涛. 2008. “在纪念改革开放30周年大会上的讲话”(<http://news.sina.com.cn/c/2008-12-18/115416873886.shtml>).

#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론: 북한 문제를 보는 새로운 접근법의 모색

—  
김상배



## I. 머리말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논하는 경우 우리가 살펴보고 풀어가야 할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 단지 남북한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국제정치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소위 '북핵·북한 문제',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조성된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안과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체제의 불안정 문제로 응축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북핵·북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남북한 관계라는 양자관계에 고정된 시각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구조'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북핵·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의 문제와 관련된 '행위자'의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형성하는 '구

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실 여태까지 진행된 한반도 통일론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이러한 문제를 굳이 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기존의 논의가 닫고 서 있는 이론적 전제의 한계로 인해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에서도 국제정치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없지 않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국가 간의 세력분포와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BoP)의 시각에서 국제정치의 구조를 단극-양극-다극체제 등으로 대별해서 파악하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있다.<sup>1</sup> 그런데 이러한 신현실주의 개념은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구조'의 전반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데에는 유용한 반면, 기본적으로 구조의 개념을 행위자가 보유한 자원이나 속성의 차원으로 환원시켜서 파악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현실주의의 구조 개념은 행위자가 선택하는 전략과 국제정치의 구조 사이에서 형성되는 구체적 상관관계나 행위자-구조 간의 동태적 변화를 밝혀내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단순계(simple system)의 발상을 기본으로 한 노드 중심의 접근을 펼치는 것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

.....

<sup>1</sup> 가장 대표적인 논의로는 Kenneth N. Waltz,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를 참조.

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복잡계(complex system) 이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에서 제공되는 이론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를 좀 더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단순한 은유의 차원에서 도입하는 종전의 접근법을 넘어서 네트워크 이론에서 생성된 개념을 분석이론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펼쳐보려고 한다.<sup>2</sup>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 이론(social-network theory)'에서 말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구조(relational configuration)'로서의 구조 개념이다.<sup>3</sup> 신현실주의가 논하는 '거시적(macro)' 구조의 개념에 대비해서 볼 때

.....

<sup>2</sup> 최근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에 원용하려는 시도로는 Emilie M. Hafner-Burton, Miles Kahler,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9.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 pp.559-592; Miles Kahler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Zeev Maoz, 2010.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민병원. 2005.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민병원. 2009. "[쟁점주제논평] 네트워크의 국제관계: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한계." 『국제정치논총』 49(5), pp.391-405; 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하영선·김상배 편.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상배 편. 201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김상배, 근간.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리 이론의 도전』 한울 등을 참조.

<sup>3</sup> 이러한 시각을 제시한 최근 연구로는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2007. "What's at Stake in the American Empire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2), pp.253-271; Daniel Nexon, 2009.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등을 참조.

일종의 '중범위(meso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중범위에서 파악된 구조의 개념은 거시적 구조의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행위자의 선택과 상호작용하는 구조의 변화를 탄력성 있게 담아내는 데 유용하다. 이 글은 이러한 중범위 구조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상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를 응용하여 개발된 '문화적 공백(cultural holes)'이나 '착취(exploit)'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 글은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펼쳐지는 행위자의 전략을 파악하는 일환으로서 소셜-네트워크 이론에서 제기된 또 다른 개념인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그 응용 개념들에 주목하였다. 위치권력 이론은 네트워크상에서 행위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부터 생성되는 권력을 탐색한다. 위치권력 이론은 기존의 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속성(즉 지정학적 위치나 영토의 크기 등)이나 행위자들이 보유한 특정 자원(예를 들어 군사력이나 경제력 또는 각종 부존자원 등)에 착안하는 '자원권력(resource power)'의 개념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로부터 생성되는 권력을 논한다. 이러한 위치권력에 대한 논의가 지니는 유용성은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공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중개자(broker)의 역할을 권력론의 관점에서 그려낸다는 데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의 성과를 원용하고 이를 응용함으로써 이 글은 북핵·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탐구하는 새로운 이론적 플랫폼을 모색하는 시론(試論)을 펼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이 글에서 원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이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소셜-네트워크 이론에서 제기하는 '구조'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적용하여 본 동아시아 세력망의 구조적 성격과 그 안에서 북한 문제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조건을 탐구하는 이론적 논의로서 구조적 공백 이론과 그 응용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개념의 틀에서 북한 문제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소셜-네트워크의 구조 속에서 상호 구성되는 행위자의 역할과 권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한국의 통일전략에 주는 함의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이 글의 주장을 종합·요약하고 소셜-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한 한반도 통일론이 지니는 의미와 과제를 짚어 보았다.

## II. 소셜-네트워크 이론의 구조분석

최근 국제정치학에서는 국제정치에서 발견되는 네트워크를 일종의 '구조'로 보고 그 특징을 밝히거나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구조로서 파악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서로 연결된 노드들의 집합' 정도로 매우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해된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반드시 행위자들이 의도적으로 조직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발생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네트워크는 일종의 '구조'이다. 최근 국제정치학에서도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시동을 걸고 있다.<sup>4</sup>

주로 사회학과 물리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구조'로서의 네트워크를 탐구한다. 소셜-네트워크 이론가들은 '개인' 단위에 초점을 두는 사회학 진영과 구별하여 '사회

구조주의자(social structuralist)'라고 불리기도 한다. 소셜-네트워크 이론은 상호작용하는 노드들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여기서 노드는 개인일 수도 있고 개별적인 조직, 다양한 종류의 집단, 국가, 도시, 공유된 특성을 가진 지역일 수도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노드들이 구성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링크에 의해서 연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노드와 링크가 일정한 패턴의 '구조'를 생성한다는 것이 소셜-네트워크 이론가들이 착안하는 부분이다.<sup>5</sup>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관심사는, 고부-아들 간의 갈등이 아들이자 남편인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처럼, 나와 개별적으로 관계가 있는 타자들의 '관계'가 일종의 '구조'로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소셜-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분석은 최근 물리학이나 네트워크 신과학(the new science of networks) 등에서 이루어진 방법론적 진전의 덕을 보고 있다. 소위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이 그것이다. SNA에서는 소시오그램(sociogram)이나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각기 상이한 노드들이 맺는 연결망을 탐구한다. 특히 방법론적으로 정교화된 수학적 모델링이나 시각화 기법을 통해서 연결망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연결망의 전반적인 연결도, 호혜성과 상호성의 정도 등을 탐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계 생물의 네트워크나 기술과 통신의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 네트워크 등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밝히려는 것이 이

.....

<sup>5</sup> Barry Wellman and S.D. Berkowitz, 1988.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용학, 2007.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

<sup>4</sup> Hafner-Burton, Kahler, and Montgomery, 2009.

들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특히 이들 연구는 네트워크 구조의 정태적인 묘사에만 그치던 기존의 연구에 네트워크의 진화론 접근과 같은 동태적인 시각이나 척도무관 네트워크(scale free networks)와 같은 구조적 시각을 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파악되는 구조로서의 네트워크는 반드시 행위자들의 의식적인 디자인의 결과가 아니라라는 특징을 지닌다.

소셜-네트워크 이론의 이러한 특징은 연구의 초점이 네트워크를 은유적 차원에서 원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좀 더 분석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는 국제정치학의 관심사와 맞아떨어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소셜-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는 주류 국제정치이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구조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국제정치이론의 주류를 이루어 온 신현실주의의 구조 개념은 행위자들 간의 물질적 능력의 분포에 기반을 두는 '거시적 구조'를 논한다. 이에 비해 소셜-네트워크 이론에 말하는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지속적인 패턴을 의미한다. 신현실주의의 '거시적' 구조 개념에 비해서 '중범위'에서 파악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범위 구조의 개념은 거시적 구조의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행위자의 선택과 구조의 변화를 탄력성 있게 담아내는 데 유용하다. 다시 말해, 소셜-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개념은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관계적 구도, 즉 네트워크 그 자체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 소셜-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개념을 국제정치 분야에 도입하면, 신현실주의가 시도한 것처럼 구조의 개념을 단위 수준으로 환원하지 않고도,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규칙적인 패턴 그 자

체의 수준에서 국제정치의 구조를 개념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조의 개념을 행위자의 내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실체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또는 이를 가로지르는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최근의 국제정치 연구에서도 신현실주의의 정태적 구조 개념을 넘어서 이러한 동태적 구조의 개념에 입각한 네트워크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sup>6</sup> 국제정치학에서 진행된 다른 구조적 접근처럼 소셜-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분석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생겼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가 선형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분석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허브(hubs), 군집(cliques),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중개자(brokers),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등으로 개념화되는 네트워크상의 관계의 패턴을 찾아내고 이러한 관계들이 낳는 효과를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관계의 패턴 또는 '구조적 속성'은 개별 행위자들이 지닌 속성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셜-네트워크 이론은 국제정치학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분석수준, 즉 개별 단위나 양자와 다자, 그리고 체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분석수준에서 구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소셜-네트워크 이론이 갖추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 구조분석에서 거시적 구조의 개념에서는 잡히지 않는 중범위 구조의 실체를 포착하는 방법론적 기법, 즉 사회연결망분석(SNA)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SNA에서는 개별 행위자의 속성보다는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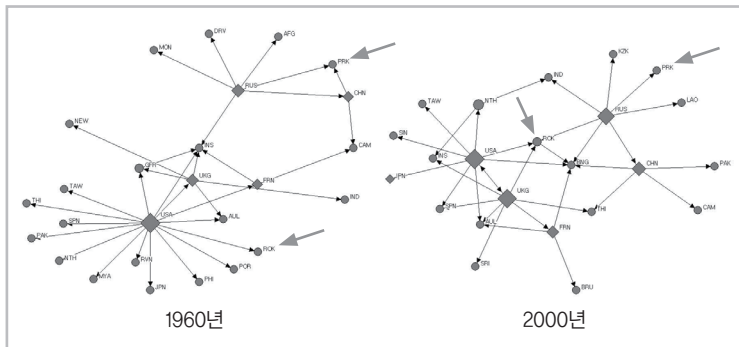
.....

<sup>6</sup> Nexon and Wright, 2007; Nexon, 2009; Maoz, 2010.

의존하는 행위자들의 관계가 강조된다. SNA는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정교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소시오그램을 그림으로써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패턴화된 관계, 즉 구조의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를 펼쳐왔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SNA의 도입은 세계정치의 구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최근 SNA의 방법론적 발전으로 인해서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가입망, 국가 간 동맹의 패턴, 무기이전의 네트워크, 국제무역 네트워크, 각종 산업의 생산 네트워크, 유학생의 교류 네트워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1>은 이러한 SNA를 사용한 국제정치 분야의 일례를 보여주는데, 1960년과 2000년에 아시아 25개국 간에 이루어진 무기이전의 네트워크를 소시오그램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 1> 아시아의 무기이전 네트워크



출처: 김형민(2010) pp.341-342에서 응용(화살표는 필자가 추가).

SNA의 적용이 국제정치 연구에 주는 의미는 관계적 데이터의 처

리나 소시오그램의 도입에만 그치지 않는다. SNA는 다양한 분석수준을 가로지르는 관계의 변환을 모델링하는 기법과 방법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들 분석수준들을 오르내리는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SNA는 여러 분석수준들을 단순히 집합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분석수준으로부터 다른 분석수준으로 전환되는 동태적 과정을 담아낼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SNA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분석수준을 새로이 설정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중요하게 여겨지던 분석수준을 우회케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상의 단위들의 부분집합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묶어내기도 한다. 요컨대, SNA는 행위자의 속성과 관계 및 구조를 하나의 패키지 안에 결합함으로써 국제정치 이론의 큰 숙제 중의 하나인 행위자와 구조의 연계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Ⅲ. 동아시아 세력망 구조 속의 북한 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소셜-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분석은 네트워크상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한 행위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소셜-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동일한 내적 속성을 지닌 행위자라 할지라도 주위의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상에서 어떠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규정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패턴이라는 노드 행위자의 외적요인으로부터 어느 행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 그리고 좀 더 넓게는 행위자가 발휘하는 권력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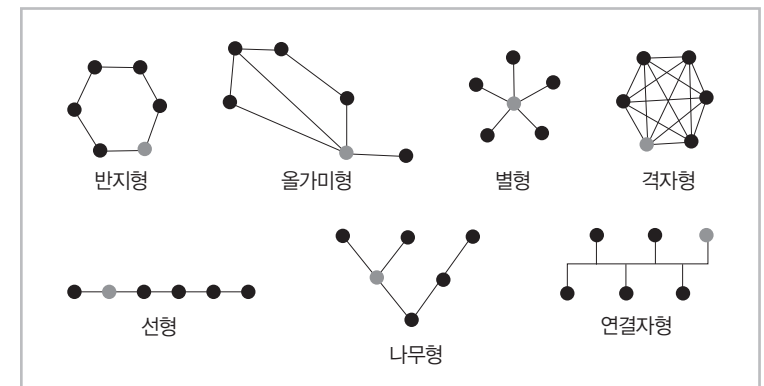
네트워크상의 '위치'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좀 더 쉽게 살펴보기

.....

<sup>7</sup> Stacie E. Goddard, 2009.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pp.249-281.

위해서 컴퓨터 네트워크 연구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지형도(network topology)의 사례를 원용해 보자.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은 색으로 표시된 주위의 다섯 노드가 서로 링크를 맺는 방식이 변함에 따라서, 그리하여 네트워크의 전체 구도가 변함에 따라서, 회색으로 표시된 노드는 그 내적 속성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일곱 가지의 상이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예상된다. <그림 2>에서 여섯 행위자가 형성하는 구조의 패턴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남북한이 벌이는 네트워크 게임의 양상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만약에 회색 노드를 한국에 비유한다면, 소위 6자회담의 테이블에 앉는 각국의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 네트워크 지형도



출처: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Network\\_topology](http://en.wikipedia.org/wiki/Network_topology))에서 응용 (회색 노드의 색깔은 필자가 변경).

마찬가지로 1960년과 2000년의 동아시아 무기이전의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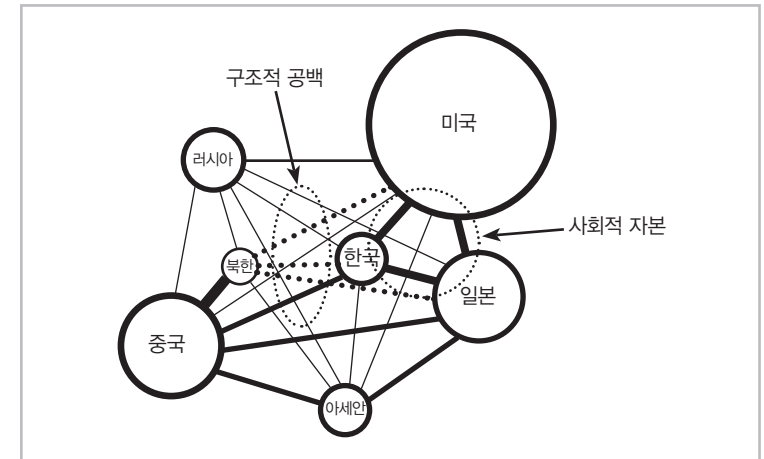


를 다룬, 앞서의 <그림 1>도 네트워크상에서 '위치'가 지니는 전략적 의미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 1>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들은 각각의 무기이전 네트워크에서 한국(ROK라고 된 노드)과 북한(PRK라고 된 노드)이 차지하는 '위치'이다. 한국과 북한이라는 노드 행위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네트워크상에서 취할 수 있는 한국과 북한의 국제정치적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1960년 미국과의 링크만 있던 시절과 2000년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국과도 링크가 있던 시절에 무기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선택지는 매우 달랐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무기이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행위자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냉전기의 개도국으로부터 탈냉전기의 중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외교전략이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북 및 통일전략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의 시각을 도입하여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세력망(Network of Powers, NoP)의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 3>은 엄밀하게 데이터를 넣어서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대략의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직관적으로 그려본 것이다. 현재 가용한 국력, 즉 행위자가 보유한 자원권력의 지표로 사용되는 i) 군사비 지출, ii) 국내총생산GDP, iii)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비추어 대략 각 노드의 크기와 테두리 선의 굵기를 조절하였다. 이러한 일곱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굵은 선, 실선, 점선 등)의 그림을 그리는데 고려한 지표는 a) 무기이전과 군사동맹, b) 무역과 FTA, c) 유학

생 교류와 인터넷 트래픽 등이다.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평가하여 네 단계로 구별하여 그렸다. <그림 3>는 가상도이지만 단순히 세력균형BoP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국제적 상호작용의 관계구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그림 3> 동아시아 세력망의 가상도



출처: 하영선·김상배 편, 2010, p.80에서 응용.

이러한 세력망의 그림이 갖는 유용성은 동아시아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특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등과 연결 지어 중개자의 역할을 좀 더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림 3>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림의 중앙에 점선으로 그려진 세 개의 링크이다. 이것들은 동아시아 세력망에 존재하는 '약한 고리'인데, 모두 북한과 연결되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의 링크이다. 지난 10

여 년간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이들 약한 고리가 동아시아에서 구조적 공백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야기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악화, 일본인 납치사건 등을 놓고 형성된 북한과 일본 간의 긴장관계, 그리고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 한층 경색된 남북한 관계 등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문제가 최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열리고 있는 소위 6자회담의 주요 의제임은 물론이다.

#### IV. 구조적 공백론으로 보는 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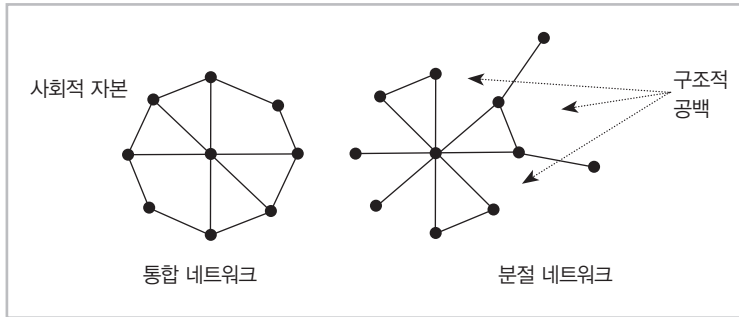
그렇다면 여기서 논하는 구조적 공백이란 무엇인가? 구조적 공백이란, <그림 4>의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분절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 간의 링크가 성기게 형성된 부분이다. 구조적 공백은 <그림 3>의 왼쪽에 있는 통합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 간의 링크가 뿔뿔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대비된다.<sup>8</sup>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영학자인 버트(Ronald S. Burt)는 중개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조직에서 경쟁의 구조를 특성화하는 작업을 펼치면서 구조적 공백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 이렇게 보면 구조적 공백이란 어느 조직 내에서 정보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단절’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연결하지 않으면 단절될 집단들의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는 행위자는 그렇지 못한 행위자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는다. 이러한 상

.....

<sup>8</sup> Robert D. Putnam,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황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버트는 중개의 의미에 대한 이론을 개발했으며, 이를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시켰다.<sup>9</sup>

〈그림 4〉 통합 네트워크와 분절 네트워크



이러한 구조적 공백 개념의 기저에는 사람이나 집단들 간의 정보의 흐름을 중개하는 중개자의 역할과 권력에 대한 논의가 깔려 있다. 중개자의 역할은 행위자의 속성이나 기질에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특성, 즉 구조적 공백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 부여되기 때문이다. 중개자로 개념화되는 행위자는 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행위자들 간에 오가는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관계의 단절, 즉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행위를 통해서 중개자는 한층 더 네트워크의 전체 구도에서

.....  
<sup>9</sup> Ronald Burt. 2001. "Structural Holes versu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Nan Lin, Karen S. Cook, and R. S. Burt, Aldine de Gruyter. 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Aldine Transaction; Ronald S. Burt, 2005.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중심의 위치를 장악하게 되고, 아울러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중요한 노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브hub'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게 된다.

한편 동아시아 세력망에서 구조적 공백보다 좀 더 복합적인 성격의 문화적 공백(cultural holes)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10</sup> 사실 최근 북핵 문제로 인해서 형성된 북한과 주변 국가들(특히 미국) 사이의 공백은 단순한 '정보 흐름의 단절'을 넘어서 '의미 흐름의 단절'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외교전략이 닫고 선택합리성의 기준이나 정치체제 및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주변 국가들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과 주변 국가들을 중개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흐름에 호환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이 북한과 같은 민족이라는 독특한 관계에 있는 한국의 질적 중개자의 역할을 기대케 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북한 및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 중개자로서 한국은 단순히 같은 종류의 정보의 흐름을 연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정보의 흐름 또는 의미의 흐름까지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와는 다른 의미의 공백인 착취혈(exploit)이 동아시아 세력망 속에서 북한 문제를 보는 데 의미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  
<sup>10</sup> Mark A. Pachucki and Ronald L. Breiger. 2010. "Cultural Holes: Beyond Relationality in Social Networks and Culture."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pp.205-224; Sun-Ki Chai and Mooweon Rhee. 2009. "Confucian Capitalism and the Paradox of Closure and Structural Holes in East Asian Firms."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6(1), pp.5-29.

잘 설계된 시스템이라도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보면 그 부산물로서 버그bugs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빈틈은 해커들이 외부에서 침투하여 시스템의 변경이나 훼손을 시도하는 목표가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상의 빈틈을 착취혈이라고 한다. 이러한 빈틈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몇 개의 빈틈이 있더라도 네트워크가 다운되지는 않지만, 그 빈틈이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도 통제하기 쉽지 않다. 특히 해커들의 공격은 어느 한 부분의 하드웨어의 파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의 교란을 노리기 때문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각종 악성코드들은 바로 이러한 호환성의 빈틈으로 침투하여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착취exploit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sup>11</sup>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일종의 착취혈이다. 구조적 공백이나 문화적 공백이 증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논의라면, 착취혈은 '기회의 창'이 역으로 '블랙 홀'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논의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급진적 독립전략이나 무모한 도발전략 또는 북한체제의 급변사태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는 논의이다. 만약에 북한이라는 구조적 공백이 끝내 메워지지 않고 방치되어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러한 사태가 동아시아 세력망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

.....

<sup>11</sup> Alexander R. Galloway, 2004. *Protocol: How Control Exists after Decentralization*. Cambridge, MA: MIT Press; Alexander R. Galloway and Eugene Thacker. 2007. *The Exploit: A Theory of Networks*.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국가적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는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들도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외교가 여러 분야에서 내비치고 있는 개도국적 성향이나 민족주의적 반응,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중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관행이나 의식 등은 현재로서는 일종의 '구조적 블랙홀'로 작동할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조적 공백이나 문화적 공백, 그리고 착취혈 등은 이미 존재하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그림 3>의 동아시아 세력망을 어느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숨기도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상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따라서 다르게 쟁점에 관여하는 행위자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의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처하고 통일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색해야 하는 대상이다.

## V.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통일전략의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소셜-네트워크 이론의 구조와 구조적 공백에 대한 논의가 한국의 통일전략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소셜-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네트워크에서 ‘허브(hub)’의 위치를 차지한 중개자는 다른 행위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소위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up>12</sup> 소셜-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러한 ‘허브’의 위치를 ‘중심성(centrality)’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중심성을 장악한다는 의미는 공간적으로 네트워크의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중심성을 이해하면, 무조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해서만 권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

.....

<sup>12</sup> Manuel Castells,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avid Singh Grewal,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김상배, 2008,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42(4), pp.397-408.

중심 노드에 어떠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노드들이 중심 노드와 어떠한 관계(즉 링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권력이 행사될 가능성은 매우 다양해진다.

이러한 중심성에 대한 논의로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의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연결 중심성은 어느 특정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들 간에 형성되는 ‘링크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어느 노드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다른 노드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근접 중심성은 어느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들 간에 형성되는 ‘경로의 길이(또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어느 노드가 다른 노드들에 정보를 전달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준다. 매개 중심성은 어느 특정 노드를 통해서 전달되는 네트워크상의 ‘최단 경로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노드에 의존하는 정도를 보여준다.<sup>13</sup>

이러한 중심성을 추구하는 중개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중개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상에서 단절된 부분을 매우는 ‘연결자(connector)’이다. 연결자가 동일한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면 상이한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상호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개자의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흐름에 ‘호환성’을 제공하는 ‘변환자

.....

<sup>13</sup> Linton C. Freeman, 1977. “A Set of Measure of Centrality based on Betweenness.” *Sociometry*. 40, pp.35-40; Linton C. Freeman,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pp.215-239.

transformer'를 들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정보의 흐름을 잇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상호소통이 단절되어 있던 '의미의 흐름'까지도 연결하는 '전달자messenger'도 중개자의 일종이다. 이 밖에도 의미의 흐름을 단순히 중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내용을 번역하는 중개자, 즉 '번역자translator'도 생각해 볼 수 있다.<sup>14</sup>

반복컨대, 이러한 중개자들의 역할은 행위자 자체의 속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지니는 구조적 특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여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의 구조적 조건이 중개자로 개념화되는 행위자들이 선택하는 전략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개자의 전략은 네트워크가 지닌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구될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 예견된다. 특히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의 전략인 경우에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네트워크의 '위치' 변수가 모든 행위자들로 하여금 똑같은 종류의 중개자로서 행동하도록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떠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건 행위자들이 취하는 자율성의 영역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5</sup>

이러한 네트워크상에서의 행위자의 역할 또는 권력에 대한 논의는 중견국middle power의 위치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는 한국의 외

.....

<sup>14</sup> 네트워크에서 중개자의 역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김상배, 2011.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논총』 51(3), pp.51-77을 참조.

<sup>15</sup> 네트워크 전략을 추구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자율적인 행위능력(agency)의 관점에서 본 논의로는 김상배, 2011.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가전략』 17(3), pp.5-40을 참조.

교전략이나,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통일전략에 주는 의미가 크다. 사실 기존 연구는 중견국의 개념을 주로 행위자에 고착된 속성론에 의거해서 이해함으로써 구조의 맥락에서 중견국의 범주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sup>16</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글에서 원용하는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의 이론은 중견국이라는 개념적 범주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중견국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제공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여 생성하는 동아시아 세력망 network of power, NoP과 그 안에서 북한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구조적 공백의 성격,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 중개자로서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통일전략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그림 3>의 동아시아 세력망을 좀 더 큰 구도에서 보면,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사이에서 한국이 추구할 중개자의 역할을 기대케 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한-미-일 삼각관계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러 삼각관계와 대치하는 '중간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일 삼각관계가 통합 네트워크를 이루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면, 북-중-러 삼각관계는 분절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는 구조적 공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양대 네트워크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가능성이 커질 경우 한국은 어떠한

.....

<sup>16</sup>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제기된 최근의 중견국 외교전략 연구로는 Goddard(2009)와 김상배, 2009.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49(4), pp.7-33.를 참조.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까? 한국은 한-미-일 삼각관계를 지탱하는 강한 고리의 장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반작용으로서 파생될 대중관계나 북-중-러 삼각관계의 거리감을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 요컨대, 한국은 '강한 고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약한 고리'의 장점을 새롭게 활용하는 연결자로서의 중개권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중개자로서 한국의 위치권력은 북한과 주변 4개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형성되는 다층적 관계를 한편으로는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 끊는 복합적인 '연결망 외교'를 통해서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를 맺고 끊는 기준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종류의 중심성(즉 연결-근접-매개 중심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연결망 외교의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연결 중심성의 극대화이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어느 고리는 강화시키고 다른 고리는 약화시키는 비대칭적 관계조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자의 위치권력이 발휘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관계조율이 단순히 맺고 끊거나 또는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개자의 역할이 네트워크 흐름의 호환성을 통제하는 변환자의 성격을 갖게 될 경우, 네트워크의 구조가 완전히 변화되거나 또는 네트워크 게임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근접 중심성 높이기의 외교 및 통일전략이라는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내편 모으기'의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실 내편 모으기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정치에서 내편 모으기 전략의 관심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를 모으는 근대적 발상을 넘어서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하드 파워 자원을 기반으로 단순히 위협하고 강제하는 방식을 넘어서 소프트 파워 자원을 바탕으로 보상과 설득 및 협력의 방식으로 세를 모으는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의 세를 형성하는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밀어붙이는 완력(腕力)이나 실력(實力)보다는 끌어당기는 '매력(魅力)'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매력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마음을 호리거나 상대방의 머리를 납득시켜 내편으로 만드는 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는 외교전략의 기본방향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인하고 설득함으로써 내편을 많이 끌어 모아 일종의 표준을 수립하는 매력외교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매개 중심성 높이기의 외교전략은, 앞서 강조했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전략을 의미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이러한 구조적 공백은 함정인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중개자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주변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공백은 한국이 나서서 메움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주변 4개국이 벌이는 '연결의 게임'과 북한이 벌이는 '단절의 게임'의 사이에서 '중개의 게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방의 게임'을 펼치는 미국의 네트워크 전략과 '고립의 게임'을 펼치는 북한의 역설 네트워크 전략 사이에서 한국은 소위 관문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자'로서의 위치권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최소한 남북한의 링크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들어 남북한의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중개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의 중개자 역할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 VI. 맺음말

이 글에서 살펴본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는 모두가 단순히 국가 행위자 차원이나 그들이 형성하는 단편적인 양자관계와 그 합이라는 맥락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현상은 일견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나 그들의 상호관계라는 맥락에서 관찰되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 또는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성격의 것들이다. 쉽게 말해, 단순히 '노드'나 '링크'가 아닌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아야 하는 문제들이다. 최근 지구화와 정보화가 진전되고 다양한 국가 간 또는 초국적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21세기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 글에서 살펴본 소셜 네트워크 이론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계정치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가시적으로 그려낸다는 데 그 유용성이 있다. 특히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정교한 통계적 기법을 사

용하여 소시오그램을 그리는 사회연결망분석, 즉 SNA는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패턴화된 관계를 보여주는 데 매우 유용하다. 물론 SNA는 데이터의 가용성이라는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현실의 네트워크 전체보다는 그 일부분만을 그려내는 데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A는 다른 어떠한 연구방법보다도 복잡한 현실의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국제정치학이라는 분야가 기본적으로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만 상상하던 '보이지 않는 관계의 패턴'을 직접 보여주는 기법의 힘은 더욱 강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러한 소셜-네트워크 이론의 이론적 성과들을 원용하여 한반도 통일론, 특히 북한 문제와 한국의 통일전략을 펼치는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였다. 특히 기존의 소셜-네트워크 이론에서 개발된 개념들을 원용하여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공백의 개념뿐만 아니라 문화적 공백이나 착취혈 등과 같은 응용 개념들에 비추어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작동하고 있는 동아시아 세력망의 성격을 이해하는 작업을 펼쳤다. 이러한 공백들은 단순히 정보의 흐름이 단절되어 생성되기도 하지만 의미의 흐름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또는 각 요소들 간의 호환성이 문제시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도전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단연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북핵 및 북한 문제로 인해서 동아시아 세력망에서 다층적인 의미의 공백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볼 때 북한을 둘러싼 공백을 메우는 것은 '상호작용성'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정치체제 간에 발생하는 각종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



격이 강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적 변수들을 중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북한 문제는 한국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인 동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착취형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 문제는 중개를 통해서 얻는 것만큼이나 그냥 방치해 두면 잃는 것도 많은, 기회와 함정이 병존하는 숙제이다.

이렇게 동아시아 세력망의 다층적 공백을 메우는 한국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글은 위치권력과 중개자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원용하였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세력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 즉 위치지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조건에 조응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찾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구조적 공백과 그 응용 개념에 대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중개자로서 한국이 담당할 역할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제기된 향후 연구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네트워크 구조와 중개자의 역할이라는 양자 간에 어떠한 종류의 상관관계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제기한 네트워크의 구조와 중개자의 권력에 대한 논의가 한국이 추구할 통일 및 외교전략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상에서 동일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한 모든 행위자들로 하여금 똑같은 종류의 중개자로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구조적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자로서 중견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나

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은 한국으로 하여금 네트워크의 구조적 조건을 예의주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세력망의 구도 하에서 한국이 추구하려는 중개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강자에 의한 중개'가 아닌 '약자에 의한 중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세력망의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가 차지하는 의미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통일 및 외교전략이 지향할 이론적인 방향을 주로 모색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제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지평에 적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또 다른 연구과제로 남는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문제는 앞으로 한국이 당면할 가장 큰 숙제들로서 좀 더 면밀한 경험적 천착이 필요한 주제들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 가상으로 그려본 <그림 3>의 실상도(實像圖)를 만들어 보는 작업은 현 단계에서 소셜-네트워크 이론이 동아시아 국제정치 연구에 주는 의미를 가시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동아시아 세력망의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에 대한 논의들은 한국이 통일 및 외교전략을 고민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상배. 2008.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한국 정치학회보』 42(4), pp.397-408.
- \_\_\_\_\_. 2009.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49(4), pp.7-33.
- \_\_\_\_\_. 2011.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논총』 51(3), pp.51-77.
- \_\_\_\_\_. 2011.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가전략』 17(3), pp.5-40.
- 김상배. 근간. 『아라카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 이론의 도전』 한울.
- 김상배 편. 2011. 『거미줄 치기와 별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 김용학. 2007.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 김형민. 2010. “무기이전 네트워크의 사회연결망 분석,”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세계 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327-351.
- 민병원. 2005.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2009. 『쟁점주제논평』 네트워크의 국제관계: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한계. 『국제 정치논총』 49(5), pp.391-405.
- 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_\_\_\_\_.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urt, Ronald. 2001. “Structural Holes versu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Nan Lin, Karen S. Cook, and R. S. Burt, Aldine de Gruyter. 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Aldine Transaction.
- Castells, Manuel.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i, Sun-Ki and Mooweon Rhee. 2009. “Confucian Capitalism and the Paradox of Closure and Structural Holes in East Asian Firms.”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6(1), pp.5-29.
- Freeman, Linton C. 1977. “A Set of Measure of Centrality based on Betweenness.” *Sociometry*. 40, pp.35-40.
- \_\_\_\_\_.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pp.215-239.
- Galloway, Alexander R. 2004. *Protocol: How Control Exists after Decentraliz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and Eugene Thacker. 2007. *The Exploit: A Theory of Networks*.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oddard, Stacie E. 2009.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pp.249-281.
-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afner-Burton, Emilie M., Miles Kahler,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9.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 pp.559-592.
- Kahler, Miles.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Maoz, Zeev. 2010.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xon, Daniel and Thomas Wright. 2007. “What’s at Stake in the American Empire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2), pp.253-271.
- Nexon, Daniel, 2009.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chucki, Mark A. and Ronald L. Breiger. 2010. “Cultural Holes: Beyond Relationality in Social Networks and Culture.”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pp.205-224.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 Wellman, Barry and S.D. Berkowitz, 1988.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